

갈등 해결책? 유명무실 제도?...KBO 연봉조정신청

구자욱 미계약으로 주목...선수 승리 1번뿐

“누구도 신청 못할 것” 이대호 예언 현실로

갈등의 해결책인가 유명무실한 제도인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연봉 조정신청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와 구자욱의 갈등 때문이다.

삼성과 구자욱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난 시점에서 아직 연봉 계약을 맺지 못했다. 구자욱은 일본 오기나와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채 2군 훈련장인 경산볼파크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NC 다이노스의 김진성도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구단과 감독의 골이 생겼다. 김진성은 지난해 연봉 2억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1억6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뒤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도 합류했다가 중도 귀국했다.

두 선수의 사례를 통해 연봉조정신청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O 야구규약에는 제75조에는 [조정신청]에 관한 내용이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

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말 그대로 연봉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1월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 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단 현 시점에서 구자욱은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연봉조정신청이 조정위원회의 결정까지 넘어간 사례는 총 20회뿐이었다. 그중 선수가 승리한 것은 단 한 차례. 2002년 LG 트윈스 유지현이 1억9000만원을 제시했던 구단안을 제치고 자신의 요구액은 2억2000만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이전, 이후로는 누구도 구단을 이기지 못했다. 심지어 2011년에는 '타격 7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조차 요구액인 7억원을 받지 못하고 구단 제시액인 6억3000

만원에 사인했다.

이대호 이후에는 2012년 LG 트윈스 소속이던 이대형이 조정신청을 했다가 결국에는 신청을 철회하며 구단안에 사인했다. 그 뒤로 8차례 연봉조정을 신청한 선수는 없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사이 큰 변화도 생겼다.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것. 이제 '선수는 자료 수집 능력에서 구단을 당해낼 수 없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선수도 에이전트를 앞세워 구단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조정신청을 거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에이전트가 나선다면 선수와 구단이 걸고러 위질 여지도 좋고, 에이전트가 선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봉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예상은 빗나갔다.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로도 연봉조정을 신청하는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각 구단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연봉신청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구자욱과 김진성도 단순한 금액이 아닌 구단들의 태도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구자욱의 경우 단순히 이번 삭감액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상황이다. 두 선수 모두 조정신청을 거쳤어도 구단을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선수와 구단이 메이저리거처럼 연봉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갈등 끝에 선택하는 마지막 출구가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자욱도 성격이 좋은 시즌에 연봉조정신청을 거쳤다면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현재의 섭섭함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KBO가 10개 구단 선수들의 연봉을 모두 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누구도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던 9년 전 이대호의 말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봉조정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선수-구단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토론토 유니폼 입을 류현진...스프링캠프 훈련 시작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옷 입고 있다” 소개



류현진(33)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스프링캠프 훈련을 시작했다.

토론토 구단은 9일(한국시간) 구단 SNS를 통해 류현진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구단은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며 류현진을 소개했다.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로고 등이 들어간 옷을 착용하고 미국 플

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가볍게 공을 던지며 몸을 푸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류현진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그곳에서 짐 정리를 마친 뒤 토론토 캠프가 열리는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토론토의 투수와 포수의 스프링캠프는 오는 13일(한국시간) 소집될 예정인데도 등지를 옮긴 보다 류현진은 일찍 캠프에 합류, 팀 분위기 적응에 돌입했다.

지난겨울 4년간 총액 8000만달러에 토론토와 계약한 류현진은 2020년 팀의 에이스로 활약할 예정이다.

2019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한 류현진을 향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류현진을 현재 선발투수 랭킹 5위에 올려놓았다. 구단은 베테랑 류현진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1

롯데 마무리 투수 손승락 “정상일 때 내려오겠다”

은퇴 결정...구단에 전달

“팬 사랑 평생 간직”

FA 손승락이 은퇴를 결정했다. 롯데지언츠는 손승락이 은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성민규 롯데지언츠 단장은 FA 시장 개장 이래 총 4차례 선수와 만나 재계약을 논의 했지만 선수 본인의 은퇴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락 측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정상 자리일 때 내려오길 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은퇴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

구단은 선수의 뜻을 존중해 은퇴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2016 시즌부터 지난 4시즌 동안 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손승락은 롯데에서만 통산 94세이브를 기록했고 구단의 한시점 최다 세이브 기록(37세이브, 2017년)을 경신한 바 있다.

손승락은 “지난 4년간 ‘롯데맨’으로 남을 수 있게 해준 롯데지언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금의 손승락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은사님들, 선배님들, 여러 지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뜨거운 롯데지언츠팬 여러분들의 사랑,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겠다”며 “아



울러 신인 때부터 응원해주신 히어로즈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은퇴소감을 밝혔다.

롯데는 손승락 선수의 지난 공로를 인정해 팬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도록 은퇴식을 오는 5월 전 소속팀인 키움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맞춰 열겠다고 제안했다.

‘1500m 금빛 질주’ 최민정, 쇼트트랙 월드컵 시즌 첫 금

5차 월드컵...女1000m 김지유·男1000m 박지원도 금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월드컵 시리즈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정 외에도 김지유(성남시청), 박지원(성남시청) 등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최민정은 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9-20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부 1500m 결승에서 2분32초37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한동안 고전하던 최민정은 지난 달 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에 걸

린 금메달 5개를 모두 차지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금빛 질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개된 결승전에서 김지유는 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올라가 마지막까지 1위를 유지해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1000m에서는 박지원이 금메달을 따냈다. 박지원은 1분24초997을 기록, 헝가리의 산드르류사울린(1분25초345)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김다겸은 남자부 1500m에서 2분16초770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다겸은 지난 4대륙 선수권 5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최민정 “부상 후 월드컵 첫 금 기쁨...최상 컨디션 만들 것”

5차 월드컵 여자1500m 금메달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차지한 최민정(성남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민정은 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9-20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부 1500m 결승에서 2분32초37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은 노아름(전북도청·2분32초554), 동메달은 중국의 한위둥(2분32초771)이 가져갔다.

최민정은 3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 2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속도가 붙은 최민정은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달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따냈던 최민정은 월드컵에서도 금



메달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최민정은 경기 후 “월드컵 시리즈에서 부상 이후에 첫 금메달을

따서 기쁘다”며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계선수권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